

“해외 선수랑 붙여달라” 챔프 이정영의 자신감

〈페더급〉

“국내 선수 중엔 내 상대가 없다”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이정영

“국내 선수 중에 내 상대가 없다. 해외 선수랑 방어전을 하고 싶다.”

로드FC 페더급 챔피언 이정영(25·썬집)의 자신감은 대단했다. 국내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다며 해외 선수와의 방어전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정영은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서 1차 방어에 성공했다. 과거 한 팀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박해진을 1라운드 10초 만에 꺾으며 로드FC 타이틀전 역대 최단 시간 승리 기록을 세웠다.

1차 방어에 성공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에게는 결코 자만하는 모습이 없다. 이정영은 15일 “꾸준함이 중요하다. 남들보다 덜 놀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다. 1차 방어에 끝냈으니 또다시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 선수는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로드FC 페더급 국내 선수 중에 내 상대는 없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챔피언급으로) 올라오는 선수가 없다. 2차 방어전은 외국 선수랑 해보고 싶다. 누가 상대가 되어도 다 자신 있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의 투철한 마음가짐이 있다. 어떤 경기에서든 꼭 이기겠다는 승부욕이 대단하다.

이정영은 “스포츠지만 싸우는 것이 직업이다. 이긴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 상대가 강하더라도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한다. 마음가짐에서 지게 되면 그 순간에 끝이다”고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끝으로 이정영은 “경기가 잡히면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팬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기대할만한 경기를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손바닥 부상 정현, 호주 오픈 출전 포기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4·한국체대·126위)이 부상 탓에 시즌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출전을 포기했다. 정현의 매니지먼트사인 IMG 코리아는 15일 “정현이 오른쪽 손바닥에 부상이 생겨 호주오픈 예선 출전을 포기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나와 복귀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남자프로테니스(ATP) 캔버라 인터내셔널 챌린저 대회에서 실전 감각을 조율한 뒤 호주오픈 예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오른손 물집 때문에 캔버라 인터내셔널 챌린저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호주오픈도 불참하게 됐다. 2018 호주오픈에서 4강에 진출하며 한국 테니스 선수 역사상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바 있다.

1월 30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인데… 소문조차 잠잠!

살얼음판 레이스… KBL ‘빅딜’ 실종 사건

1위서 6위까지 6.5계급차 사정권 하위팀도 4.5연승땀 중위권 가능 감독 6명 곧 계약 만료 총력 태세 주축 선수·지명권 거래는 없을듯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매 시즌 4라운드 종료일을 트레이드 마감일로 정하고 있다. 프로농구는 매 시즌 올스타 휴식기를 전후로 트레이드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그러나 올 시즌은 조용하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19일 열린다.

트레이드는 양 팀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이뤄진다. 대부분 4라운드 종

료 시점에는 순위 구도가 어느 정도 가려진다.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 플레이오프(PO) 진출 경쟁 팀, 그리고 PO 진출이 어려운 하위권 팀이 구분된다.

하위권 팀들은 그냥 시즌을 끝내기는 아쉬움이 남는다. 좋은 외국인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승을 노리는 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를 내주고 잠재력 있는 국내선수, 또는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어오는 트레이드를 노린다.

반대로 상위권 팀들은 우승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지명권을 내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전력보강에 열을 올린다. 아예 주축선수 거래가 오가는 ‘빅딜’이 이뤄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구단 간 거래가 조용한 상태다. 팀 간 순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3라운드 후반에는 1위부터 8위까지 격차가 6경기 밖에 나지 않기도 했다.

4라운드가 진행 중인 현재 5위 전주 KCC(18승15패)와 공동 6위 부산 KT, 울산 현대모비스(이상 15승18패)의 격차가 3경기로 벌어져 있지만 5, 6라운드 일정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또한 하위권 팀들도 분위기를 타 4~5연승 정도를 달린다면 중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다. 시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도 6명(현대모비

스 유재학, 오리온 추일승, 전자랜드 유도훈, DB 이상범, 삼성 이상민, LG 현주엽 감독)이나 된다. 이상범 감독, 유도훈 감독을 제외한 4명의 감독은 팀이 하위권에 있다.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계약 마지막 시즌에 리빌딩을 구상하는 감독은 없다.

이로 인해 트레이드 시장은 더 움츠러들었다. 3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트레이드 뜻을 내비친 팀이 있었지만, 서로 간의 의사만 주고받은 선에서 마무리됐다. 백업 멤버 간의 교환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주축 선수나 지명권을 주고받는 빅딜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은 1월 30일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맞춰볼 시간이 없네” 전창진 감독의 고민

〈KCC〉

휴식기 불구 후반기 첫 경기 예정
울스타 뺀 4명 빠지면 훈련 차질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15일 창원 LG와 서울 삼성, 원주 DB와 서울 SK의 격돌을 끝으로 올스타 휴식기에 돌입한다. 올스타 휴식기 동안 각 구단은 선수들의 휴식과 함께 전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 일정에 따라 각 구단의 희비가 엇갈린다. 14, 15일 주중 게임이 없는 팀들은 12일 경기를 치른 직후 선수들에게 짧은 휴가를 줬다. 몇몇 구단 선수들은 가족, 친구들과 이틀 간의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정규리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선수들에게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반면 주중 경기를 치른 팀들은 여유가 없다. 특히 전주 KCC는 팀 훈련 일정조차 타이트 하다. 14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원정경기를 소화한 KCC는 21일 고양 오리온과 홈경기가 예정돼 있다. 이 경기는 19일 올스타전 이후 후반기를 여는 첫 경



전창진 감독

기다. KCC 전창진 감독(58)은 “가뜩이나 팀 훈련을 할 시간이 부족한데 (후반기) 첫 경기다. 뭔가 맞춰보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KCC는 15일 하루 선수단 휴식을 가졌다. 16, 17일이 그나마 제대로 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 감독은 “우리 팀에 올스타가 4명이나 있다. 18일에도 팬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더라. 올스타에 뺀 선수들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훈련이 의미가 없다. 19일(올스타전 당일)에는 전원이 경기장(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올스타전을 치른 뒤에도 쉴 시간이 없다. 오리온과의 경기를 위해 20일 전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감독은 “더 맞춰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KCC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결국 감독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더 고민하고 노력해보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정지욱 기자

팬 우롱한 김승기 감독의 변명·구단의 방관

〈KGC〉



최웅석의 팀인

안양 KGC 김승기 감독(48)은 1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연장전 막판 불성실한 경기를 펼치고, 경기 종료 후 심판과 KBL 관계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해 1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은 14일 KBL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김 감독은 12일 전주 KCC와의 원정경기에서 앞서 전날 LG전에 대해 “해당 장면에서 벤치에 앉은 것은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됐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악을 복용하고 안정을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됐으니 내일 경기를 감안해 잘 마무리하라’고만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KGC 한 팬이 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코치석 바로 뒤 응원석에 앉은 팬입니다. 경기 약 2분 남기고 ‘아 그냥 하지마’ 지시 내린 김승기 감독 인성과 코칭 능력 ㅇㅈ입니다”라고 했다. 이 팬은 김 감독의 해명 기사를 본 뒤 ‘팬을 두 번 조롱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그



김승기 감독

냥 하지마’ 말한 거 똑똑히 들었다”고 제차 일침을 가했다. 또 한 가지는 가슴 통증을 느껴 위험할 것 같아 악을 복용하고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김 감독의 경기 종료 후 행보다. 김 감독은 지난해 여름 가슴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벤치에서 2~3분간 안정을 취한 김 감독이 분을 식이지 못하고 심판과 KBL 경기본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판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부분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구단의 대응도 문제다. 이번과 같이 큰 일이 벌어지면 구단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김 감독에게도 인터뷰 등에 대해 조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KGC 구단은 한 발 뒤로 빠졌다. KBL 재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도 김 감독 혼자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감독과 KGC 구단이 보인 말과 행동은 KGC 팬뿐 아니라 전체 농구계와 팬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다.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그보다 더한 징계가 내려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KGC가 이번 시즌 마케팅과 팀 성적에서 모두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이번 일로 모두 수포가 됐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스포츠부 차장 gtyong@donga.com



콜리엇을 뚫고…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다리오스 갈란트(가운데)가 15일(한국시간)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LA 클리퍼스전에서 상대 수비를 피해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LA AP뉴시스